

#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의 불평등과 정책적 함의

이 정 우\*

지식 사회의 등장으로 각 개인의 취업 가능성과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기업과 국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서 직업 관련 기술 증진 및 정보 습득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한 성인학습 및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ALE 참여의 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ALE 참여의 불평등 패턴을 분석한다. 특히 다른 분석수준(개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 직업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수들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로즈스톡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 종류의 변수들은 각각 ALE 참여의 불평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ALE 참여의 불평등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상호관련성이 있는 정책영역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인 개입이 ALE 참여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된다. 본 연구는 ALE 참여에 소외되는 개인들, 더 나아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 1. 들어가는 글

지식 사회와 경제에서 정보, 기술 및 지식의 양적인 성장과 복잡성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관련 기술과 지식의 지속적인 향상은 현 경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의 획득과 더 나아가서는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는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숙련된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 가능 인구(15-64세)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은 평생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한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박사 과정(PhD Candidate)

서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학습 및 교육(adult learning and education: 이하 ALE)을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은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적 자립도 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적 사안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970년대 이후 ALE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Belanger, 2011). 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성인 인구들 사이에서의 ALE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관련 기술과 지식을 증진시켜야 할 개인들이 오히려 ALE기회가 보다 적게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 시장에서 비숙련 노동자를 희생시킴으로서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간의 직업 관련 기술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Boeren, 2009). 지식 경제로의 전환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과 직업에 더 많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부과하였고, 노동 시장에서도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 시장 양극화를 야기하였다.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또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임금의 격차(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식 사회와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사회보장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촉발시켰다. 국가 경쟁력 제고는 날로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지위 경쟁(positional competition)과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Lauder, Brown & Ashton, 2008). 사회 불평등은 사회내에서 특정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불리함(socioeconomic disadvantage)을 반영한다(Dabla-Norris, Kochhar, Suphaphiphat, Ricka & Tsounta, 2015). 또한 불평등은 소득, 교육 성과와 같은 특정 성과들이 개인의 노력이나 타고난 능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ALE 참여의 불평등은 특정 사회 구성원의 기회 부족의 신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결과(social consequences)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기술적인 측면(technological dimension)의 결합은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소외화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교육과 같은 각종 사회경제적 기회로부터도 배제되어져 왔다. 따라서 비숙련 및 저학력(low-skilled and low-educated) 성인들에게 있어서 공평한 ALE 기회는 작게는 노동시장으로, 크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로 편입과 통합될 수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ALE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기존의 많은 ALE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떻게 ALE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배경과 조금 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이라는 두 가지의 연관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이 요소들의 중요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영향력이 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여러 자원들의 분배 및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에 달려있고(Desjardins,

Rubenson, & Milana, 2006), ALE 참여의 불평등은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보다 넓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그대로 투영한다는(Rubenson, 2009)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배경

### 1. 연구문제의 진술과 목적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이후 HCT)에 이론적인 토대를 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최종교육 수준, 나이, 성별, 부모 교육 수준, 직업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미시적 요소들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성인 노동 인구의 ALE 참여의 불평등, 그리고 이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과의 관련성이 다양한 국제비교연구를 (Desjardins 외, 2006; Roosmaa & Saar, 2010; Rubenson, 2010) 통해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ALE 참여의 선택과 결정이 전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결론 짓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구조적 조건(structural conditions)들은 각 개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개인들이 선택하게 될 가능한 대안들을 한정하고, 따라서 개인들의 행동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ALE 참여의 불평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HCT의 핵심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의 이론적인 설명도 요구된다. cross(1981)는 성인 직업 교육 및 훈련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 종류의 장애물 - 제도적(institutional), 상황적(situational) 그리고 성향적(dispositional) - 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ALE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ALE 참여는 개인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미시적), 직장/노동 환경(중시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문제(거시적)가 복합적으로 ALE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있다. 특별히 중시적 및 거시적 요소들이 ALE 기회 제공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아울러 ALE 참여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법을 다른 OECD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ALE 참여는 주로 '성인 교육(adult education)'과 '교육 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에 이론적인 토대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설명되어져 왔는데(Rubenson, 2007), 각 개인의 의사 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개별적인 ALE 로의 접근법이 이론적인 토대의 핵심이다. 개인주의적 접근법은 불평등이 사회내에서 인식되는 방식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모든 성인에게 ALE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별히 앞서 언급된 개인주의와 경제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는 HCT가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이다. HCT는 ALE 참여 결정 등을 포함한 개인들의 행동과 선택을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적인 토대로서 3가지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Ehrlich & Murphy, 2007; Rees, 2013). 첫째, 개인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의 비용이익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 둘째, 각 개인들은 시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셋째, 개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지식들을 자신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 사용한다(Rees, Fevre, Furlong & Gorard, 2006). 또한 HCT는 개인이 획득한 교육 수준과 기술은 그 개인들의 노동 생산성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Becker, 1964; Rees, 2010). 실제로 개인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고용 가능성, 고임금의 금전적, 경제적인 수익, 고용 안정성 등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주로 축적이 되고, 사회적 현상의 토대를 개인의 행동으로 역추적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HCT는 가정한다(Rubenson, 2007). HCT가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사회경제적배경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 교육 수준과 ALE 참여율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Desjardins 외 (2006)는 고소득 가정과 같은 더 좋은 가정 배경을 둔 개인들이 더 높은 교육과 직업 지위를 달성하고, 이는 더 높은 ALE 참여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CT는 ALE 참여의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ALE 참여 결정은 단순한 편익 비용 계산이 아닌 더 복잡한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각 개인들은 실제로 ALE 참여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나 고용주나 정부로부터 받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 부족과 같은 장애물과 제약에 직면한다(Desjardins, 2010). 개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장애물과 기회는 ALE 참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ALE를 주관하는 정부로부터 받는 적절한 기관 지원(institutional support)과 ALE 기회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 개입(public intervention)은 공평한 ALE 기회 분배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Cross, 1981; Desjardins 외, 2006).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장애물들은 ALE 참여의 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다른 한편,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에 대한 HCT의 가정은 교육의 기회를 잡기 위한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를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 개인들의 행동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에 의존하고 사회 시스템 안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Rees 외, 2006), 각 개인들은 ALE에 대한 동일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세대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대한 연구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를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들 소유의 재화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이해한다(Bjorklund & Jantti, 1997). 특히 Erikson & Goldthorpe(1992)은 개인들이 소유한 불공평한 재화의 분배는 이동성을 위한 계급간의 경쟁(class competition for mobility)에 있어서 불공평한 기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는 개인들은 위치 경쟁에서(positional competition)에서 뒤쳐지게 되는 것이다. 각

개인들의 인적자원, 특히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으로의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은 물론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된다고 전제한다면, 일부 개인들은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주장은 과장은 아닌 것이다.

또한 HCT가 강조하는 개인의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은 현재의 ALE 시스템에서 ALE 참여의 불평등을 합리한다고 볼 수 있다(Rubenson, 2006). 각 개인의 낮은 수준 혹은 불충분한 기술(skills)과 자질들(qualifications)은 실업과 불안전고용의 주된 원인이라고 HCT는 이해한다(Valiente, 2014). 그러나 모든 개인들이 완전하게 자립적이고, 현재의 ALE 시스템에서 스스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역량(competencies)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특히 불평등한 경제적 재원의 분배와 불안정한 자본 시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저소득 개인들이 자신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최적의 투자결정을 할 개연성은 낮다(Blanden & McNally, 2014). 이러한 사실은 ALE 참여 패턴은 각 개인별로, 사회별로 다를 수 있고, 하나의 특정한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닌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구성되어지는 합리성이 ALE 참여에 대한 각 개인의 행동과 결정이 연구되어야 한다(Rees 외, 2006). 따라서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각 개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을 형성하고 아울러 제한하는 정도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Nilsson & Nystrom, 2013).

ALE 참여의 불평등을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한 요소는 사회불평등이다. 사회불평등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차이점을 의미하고, 많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개인간의 상대적인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Binelli, Loveless, & Whitefield, 2015). 낮은 수준의 사회불평등은 높은 수준의 인적개발, 더 나은 경제적인 성과, 정치적 안정성 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생성한다(Binelli 외, 2015). 따라서 사회불평등이 사회내에서 어떻게 사회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ALE 참여의 불평등을 연구하는데 수반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불평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부여되고, 사회불평등은 개인의 역량부족의 결과임과 동시에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려책으로 고려된다(Desjardins, 2013). 따라서 ALE 참여의 불평등을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ALE에 대한 투자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교육에 주요 투자자이었던 북유럽/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ALE 참여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빈번하지 않다.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ALE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ammrich, de Vilhena & Reichart, 2014; Gouthro, 2011). Kilpi-Jakonen, de Vilhena & Blossfeld(2015)는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불평등과 ALE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국가별 참여율은 다르지만 사회불평등은 공통적으로 ALE 참여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매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은 재분배라는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Busemeyer, 2015)는 사실을 전제로 ALE 참여의 불평등도 사회경제

적, 제도적 환경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3. 연구과제

본 연구는 위에서 다루어진 선행연구 검토를 기본적인 토대로하여 도출하여 낸 세 가지의 연구 과제를 다룬다. 첫 두 개의 연구과제는 계량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구 과제는 질적 정책 분석으로 다루어진다.

1.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ALE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직장환경(중시적)과 사회경제적 맥락(거시적)이 ALE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1번과 2번 연구 과제를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들이 ALE 참여의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III. 연구 방법론

###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5년에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과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y Study: 이하 KLIPS)의 18차 자료에 기초한다.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적절한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필수적이며 이에 수반되어 강조되는 개인 및 가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KLIPS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가구패널조사를 실시해 왔다. KLIPS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예를 들면 가구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가능토록 하였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길도 열어주었다.

### 2. 분석방법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본 연구는 다른 분석 수준(미시, 중시, 거시) 변수들 사이의 잠재적인 연결 고리가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과제 1번과 2번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기술적 통계는 ALE 참가와 다른 분석 수준의 변수들 사이의 가능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아울러 기술적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되는지, 다시 말하면 그 관련성의

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te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실제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ALE 참여의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Dammrich 외, 2014; Dammrich, Kosyakova & Blossfeld, 2015; Desjardins 외, 2006; Wahler, Bushholz, Jensen & Unfried, 2014). 본 연구는 분석 수준별 독립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시키면서 그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설명된 연구방법을 18차 한국노동패널 조사 응답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로 국한하여 적용한다. 설문항목(p180202)에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들을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25-64세에 해당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OECD(2016) 정의에 따르면 노동가능 인구 연령은 15세에서 64세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15-24세는 취학연령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25-64세를 노동가능한 성인 연령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표본을 제한한다. 총 표본은 취업자 개인 6,827명이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가. 종속 변수

ALE는 일반적으로 형식, 비형식, 준형식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KLIPS 자료는 비형식 교육 및 훈련의 참가 여부에 대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므로 본 연구도 비형식 ALE 참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교육부 & 교육개발원(2014)이 정의한 비형식 교육 즉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고등학력보완교육, 직장에서 받는 직무연수나 특강, 학원 수강,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수강,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이 해당한다.(13쪽)”를 참고로 한다. 본 연구는 ALE 참가를 이항 변수 즉 참가 여부를 '예' 혹은 '아니오'로만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KLIPS 18차 조사는 2가지 비형식 ALE(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과, 직장연수, 학원수강, 인터넷 통신강좌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LE 참여 시기(기간)는 KLIPS 17차 직후부터 KLIPS 18차 조사 이전 1년 동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교육이지만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비형식 교육의 정의를 근거로 모두 비형식 교육으로 간주하고 한 종류라도 참가하는 경우 ALE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직장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나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총 4가지의 변수(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최종학력수준), 직장환경

은 총 2가지(근로형태, 근로시간형태), 사회경제적 환경은 총 2가지(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인식, 직업 안정성)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중 사회경제적지위는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표 1〉 변수 측정

변수	설문 항목	변수설명(코딩)	비고
ALE 참가			2개 항목에서 '받은 적이 있다'와 '현재 받고 있다'는 '예'로 분류. 모두 '예'로 답한 경우 ALE 참가에서 '예'로 분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p184501	0: 아니오; 1: 예	
사회경제적 지위	p184801	0: 아니오; 1: 예	
	p186615	1: 상류층, 2: 중산층, 3: 하류층	'상상', '상하'는 '상'으로 '중상', '중하'는 '중'으로 '하상', '하하'는 '하'로 분류.
성별	p180101	1: 남자, 2: 여자	
연령	p180107	1: 25-34, 2: 35-44, 3: 45-54, 4: 55-64	연속형 변수를 4개의 연령 범주로 나누어 분류.
학력 수준	p180110	1: 중졸 이하,	학력과 이수여부를 바탕으로 분류.
	p180111	2: 고졸, 3: 대졸 이상	
고용 형태	p180317	1: 정규직, 2: 비정규직	
근로시간 형태	p180315	1: 시간제, 2: 전일제	
사회계층이동	p186601	1: 긍정적, 2: 부정적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적',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으로 분류.
직업 안정성	pa185900	0: 아니오, 1: 예	

자료: 18차 한국노동패널 조사

참고: 성별,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직업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저자에 의해서 파생된(derived) 것임.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조사응답자들 본인들의 지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변수이고, 최종학력수준은 조사대상자 본인의 최종학력을 명시한 변수이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이항 변수이고, 연령은 범주형 변수로 구분된다. 직장환경은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는 이항형 변수들이다. 사회경제적환경 또한 각각 변수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은 한국 사회가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직업 안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표이다. 표 1은 변수들의 설문 항목과 입력 방법 등의 실제 분석과 관련된 측정 내용을 보여준다.

## IV. 분석 결과

### 1. ALE 참여 실태: 기술 통계 중심으로

표 2와 표 3은 25-64세 노동가능 성인들 중에서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성인들의 ALE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참여율(8.3%)이 다른 형태의 비형식 교육(1.8%)보다 약 4배 정도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도 비형식 교육의 한 형태라는 전제하에 두 가지 교육의 참여율을 합산 할 경우, 전체 표본에서 약 10% 정도만 ALE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ALE 참여의 불평등도 존재함을 표 2와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 학력 수준별 불평등한 참여 패턴이 가장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이 증가할 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는 중졸 이하의 경우보다 참여율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변수들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경우는 중류층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의 경우에는 35-44세에 해당하는 성인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녀간의 참여율을 같으나 여성의 경우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남성의 경우 비형식 교육 참여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류층 사회경제적 지위, 노년층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은 실제적인 ALE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표 2를 바탕으로 하여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직업 관련 배경 변수를 고려할 경우, 정규직 혹은 전일제 취업자들은 ALE의 참여율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더 받는 그룹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참여율이 약 2배, 전일제 근무자들은 시간제 근무자들에 비해서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전일제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주나 회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직업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한 교육 혹은 훈련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정규직 혹은 전일제 근무자들의 높은 ALE 참여율은 납득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학적 맥락에서 사회계층 이동의 가능성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ALE의 불평등한 참여 실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본인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두 변수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참여율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계층 이동의 가능성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는 ALE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관관계는 ALE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로도 직결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 ALE 참여 현황 (%): 25-64세 취업자, 직업 관련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

	전체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비형식 교육
전체	9.7	8.3	1.8
사회경제적 지위			
상류층	9.8	9.0	1.2
중류층	11.7	9.9	2.4
하류층	4.7	4.2	0.5
성별			
남자	9.7	1.5	8.5
여자	9.7	2.3	7.9
연령			
25-34	11.5	9.4	2.6
35-44	12.3	10.5	2.6
45-54	9.4	8.2	1.5
55-64	4.7	4.3	0.6
학력 수준			
중졸 이하	4.7	3.7	1.1
고졸	8.6	7.8	1.0
대졸 이상	13.6	10.9	3.4
고용 형태			
정규직	13.2	11.5	2.4
비정규직	6.9	5.6	1.5
고용 시간			
전일제	11.8	10.1	2.2
시간제	3.8	3.6	0.3
사회 계층 이동			
긍정적	12.0	10.3	2.3
부정적	6.8	5.7	1.3
직업 안정성			
긍정적	12.3	10.6	2.2
부정적	5.3	4.0	1.6

자료: 한국노동패널 18차조사.

## 2. ALE 참여실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심으로

표 2는 세 개의 다변량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모형 2는 직장환경, 모형 3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ALE 참여여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포함하면서 분석하였다. 표 3에 따르면 ALE 참여의 불평등은 일부 변수에 따라 나타난다. 모형 1에서는 하류층이 ALE에 참여 할 오즈(odds)는 상류층이 참여 할 오즈보다 0.48배 낮게 나오며, 55-64세 성인은 25-44보다 0.5배 낮게 나타난다. 최종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 성인이 ALE 참여 할 오즈는 중졸이하 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2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고졸 이상 성인의 ALE에 참여할 오즈도 중졸이하 성인보

다 ALE에 참여할 오즈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새로 추가된 중시적 수준의 직장환경 변수 중에서 고용기간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전일제 근무자들의 ALE 참여할 오즈는 시간제 근무하는 성인보다 2.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3의 결과도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로 포함된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들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표 3> ALE 참여 불평등 (오즈비: odds ratio), 25-64세 취업자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S.E	OR	Beta	S.E	OR	Beta	S.E	OR
사회경제적 지위									
중류층	.18	.37	1.20	.30	.43	1.35	.40	.43	1.50
하류층	-.66*	.40	.52	-.59	.46	.55	-.37	.46	.69
성별									
여자	.03	.12	1.04	.04	.13	1.04	.03	.13	1.03
연령									
35-44	.06	.16	1.06	.08	.16	1.09	.10	.16	1.10
45-54	-.10	.15	.90	-.01	.17	.99	-.01	.17	.99
55-64	-.70***	.19	.50	-.72***	.23	.49	-.73***	.23	.48
학력 수준									
고졸	.29	.21	1.33	.55**	.26	1.74	.52**	.26	1.68
대졸 이상	.64***	.22	1.90	.81***	.28	2.25	.75***	.27	2.11
고용 형태									
비정규직				-.15	.17	.86	.06	.19	1.06
고용 기간									
전일제				.93***	.36	2.54	.94***	.37	2.55
사회 계층 이동									
부정적							-.49***	.13	.61
직업 안정성									
부정적							-.42*	.24	.65

자료: 한국노동패널 18차조사.

참고: 유의확률: \*p<.05; \*\*p<.01; \*\*\*p<.001. 변수들 중에서 생략된 범주는 비교기준 범주이다.

나타난다. ALE 참여의 오즈는 사회계층의 이동과 직장 안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성인이 낮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전부 통제하였을 때 사회계층이동에 긍정적인 성향의 성인보다 부정적인 성향의 성인들이 ALE에 참여할 오즈는 0.61배이고 직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성향의 성인보다 부정적인 성향의 성인들이 참여할 오즈는 0.65배이다.

아울러 모형 1의 일부 변수의 경우 모형 2에서 직장환경 변수 추가시, 모형 2의 변수 중 모형 3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 추가시 오즈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ALE 참여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사이의 관계가 새로 추가된 변수들의 교락(confounding) 영향 때문이다. 기존의 관찰된 관계를 새로운 변수들이 약화시킴으로 오즈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새로 추가된 변수들이 ALE 참여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 V. 정책분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호

ALE 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거시적 수준 제도적 환경(macro-level institutional setting) 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제도적 변수들은 정치제도와 복지모델(Esping-Andersen, 1990; Rubenson, 2006), 노동시장구조와 정책(Doeringer & Piore, 1971; Muller & Shavit, 1998), 교육 및 훈련제도(Allmendinger, 1989, Gangl, 2003), 경제조정 정책(Estever-Abe, Iversen & Soskice, 2001; Hall & soskice, 2001; Roosmaa & Saar, 2010, 2012)등을 포함한다. 특히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투자와 교육 제도의 양극화 같은 제도적 환경 변수들은 고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들 사이의 ALE 참여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Roosmaa & Saar, 2010), ALE 참여가 권리(a human right)로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도 ALE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Saar & Helemae, 2008). 따라서 제도적 환경의 발전은 ALE 기회의 분배형태를 형성하고 실제로 그 기회를 잡도록 하는 장려책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제도적 환경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Saar, Ure, & Desjardins, 2013). 예를 들면 북유럽/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높은 ALE 참여율과 상대적은 낮은 수준의 사회불평등은 국가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공평성(equality standard) 추구를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Rubenson, 2006). 본 연구는 여기에서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들 중에서 ALE 참여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제도적 환경 변수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다른 OECD와의 비교를 함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이하 ALMPs)

ALMPs는 복지국가의 확립에 토대로 여겨지고 있으며(Rubenson, 2006), 대부분의 ALMPs는 구조적인 실업 감소, 노동력의 생산성 강화, 실업자들의 취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업기술 강화 및 고소득 직장을 갖기 위한 기회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OECD, 2003). 따라서 ALMPs는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재편입되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안정화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Arminggeon, 2007; Zubovic & Jonel, 2011). ALMPs는 구직 및 취업 알선, 직업 능력 중진을 위한 직업 훈련, 공공 분야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ALMPs가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Kilpi-Jakonen, Buchholz, Dammrich, McMullin, & Blossfeld(2015)는 ALMPs는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재정적 자원 부족으로 실제적인 ALE 참여가 저조한 저학력자들의 ALE 참여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ALMPs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원과 결합되어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면서 ALE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정 목적이 있는 ALMPs는 ALE 참여율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이다(OECD, 2003). 실제 덴마크(flexicurity)와 스웨덴(Adult Education

Initiative)에서는 ALMPs는 실업자들의 높은 ALE 참여율에 기여를 해 오고 있다(Desjardins 외, 2006).

## 2. 고용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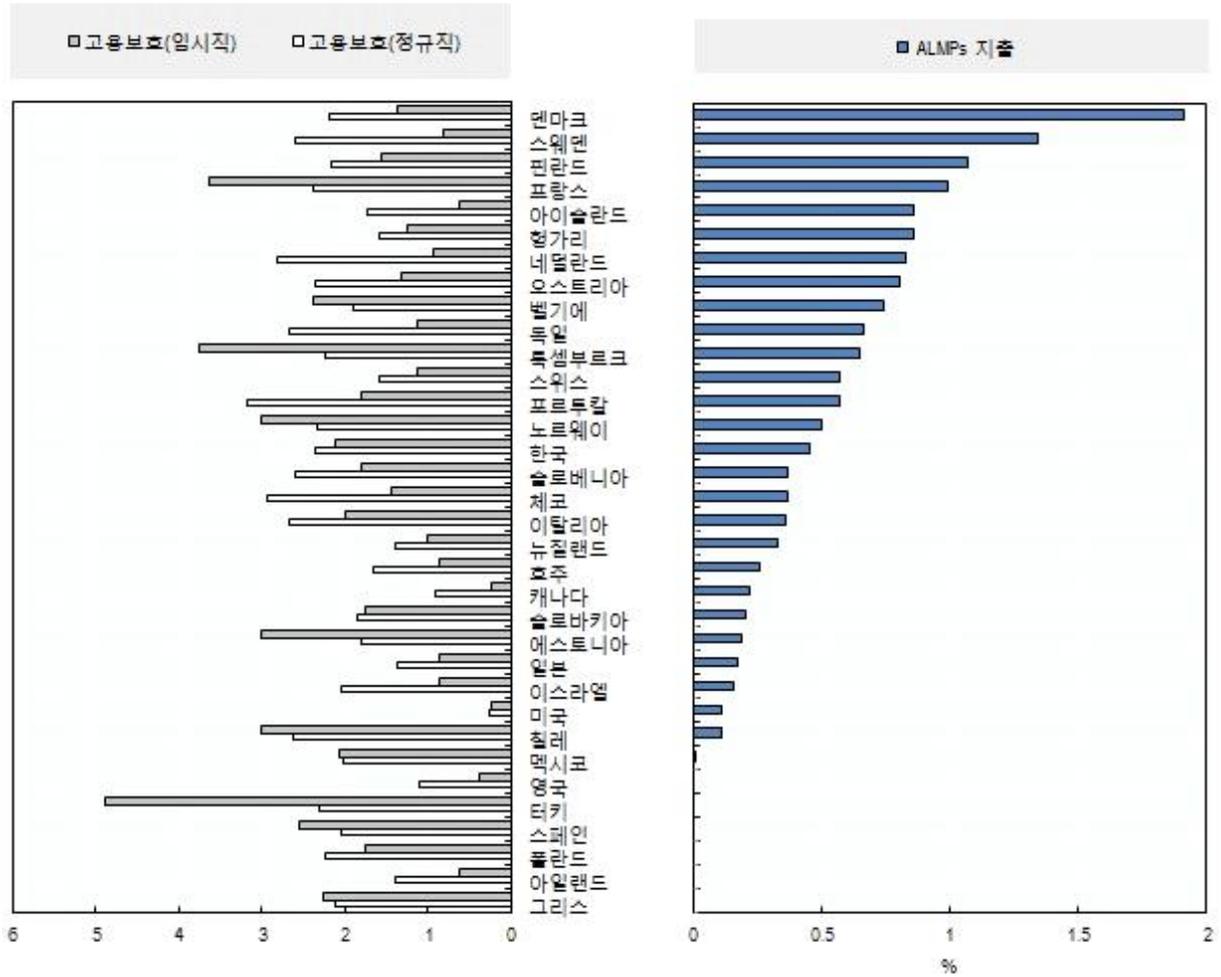
ALMPs와는 달리 고용보호는 일반적으로 취업자들, 특히 숙련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Almond & Menendez, 2006). 고용보호는 이론적 관점에서 엄격한 고용보호가 평균 고용수준을 줄인다는 확고한 이유는 없다(Buchholz, Hofacker & Blossfeld, 2006). 그러나 고용보호의 중요성은 고용보호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도 고용상태 유지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데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고용인들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직업 능력과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들간의 장기적 상호관계지향성을 촉진시켜주고 실제적으로 평등한 ALE 기회를 촉진한다(Dieckhoff, Jungblut, O'Connell, 2007). 이 장기적 상호관계지향성의 정도는 고용인들에게 전가되는 노동시장의 위험(labor market risk)과 더불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Ebbinghaus, 2012; Soskice, 1999). 고용보호는 개인 노동자들이 시장원리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market force)를 받는 조정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에 의해 생성된 높은 수준의 고용 유동성과 해고비용의 감소는 고용주의 고용인들의,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Acemoglu & Pischke, 2000).

## 3. 시사점

그림 1은 OECD 국가들의 ALMPs와 고용보호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보여준다. ALMPs 지출은 GDP 대비 ALMPs 정부 지출(%)을 의미하고 고용보호지수는 고용보호의 엄격함 정도(0-6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대체적으로 ALMPs에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반면에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국가들(예를 들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은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평균(0.56%)보다 낮은 수준(0.33%)의 ALMPs로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지원보다는 각 개인별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또한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ALMPs 지출과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호 지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임시직 고용보호 지수는 2.13,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2.37로 OECD 평균(1.72, 2.04)보다 각각 높게 나타난다. ALMPs 지출은 낮았던 자유시장경제 국가들(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은 고용보호지수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ALMPs 지출이 높았던 나라들이 고용보호지수도 높은 나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보호와 직업교육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들에서는 개인들의 책임과 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비숙련, 낮은 교육 수준의 노동자들은 ALE 참여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과 고용보호 지수, OECD 국가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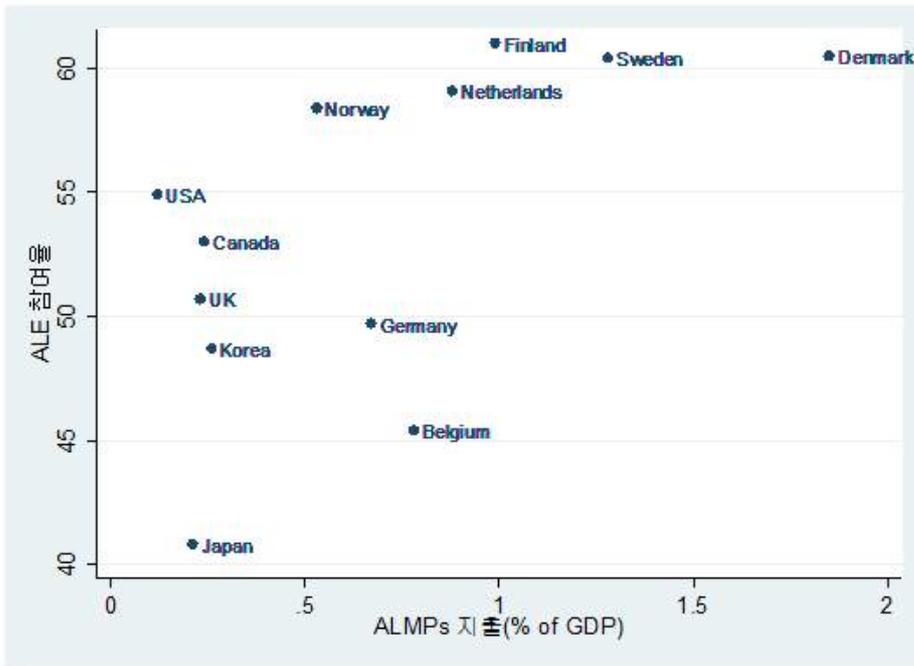


자료: OECD.stat(2016)

참고: 최근 자료(2013년)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그림.

그림 2는 일부 OECD 국가들의 ALE 참여와 ALMPs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LE 참여는 비형식교육의 참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2012년 OECD 국제성인역량 조사 능력(PIAAC)를 토대로 계산되었다. ALE 참여율과 ALMPs 지출의 상관계수는 .59로 뚜렷한 양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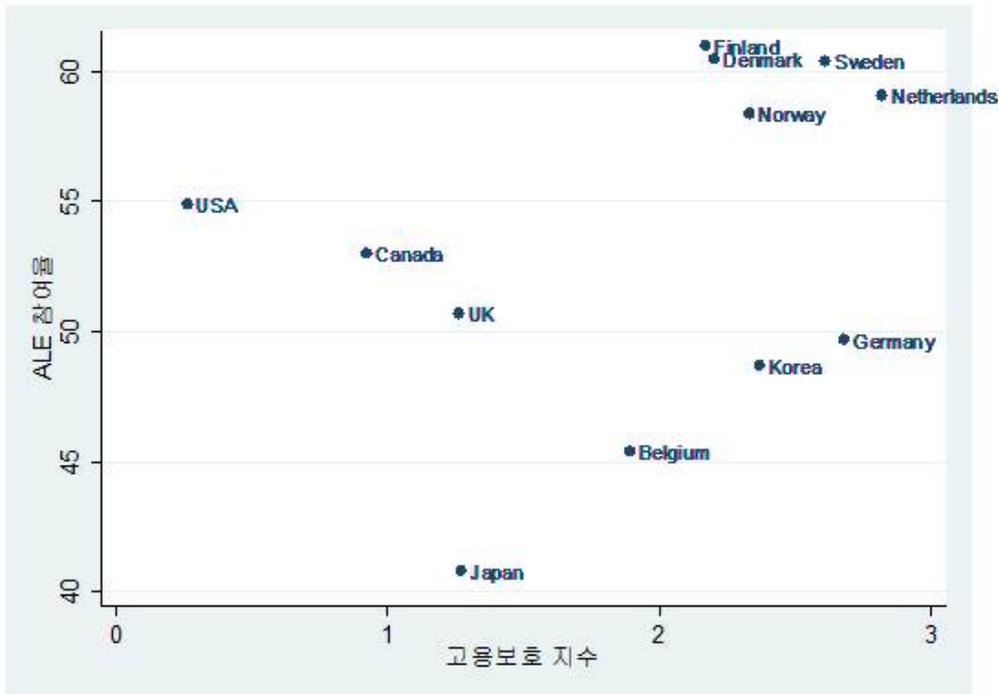
〈그림 2〉 ALE 참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의 관계



자료: PIAAC(2012), OECD.stat(2016)

참고: PIAAC(2012)와 OECD 최근 자료(2013년)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그림.

〈그림 3〉 ALE 참여율과 고용보호 지수와의 관계



자료: PIAAC(2012), OECD.stat(2016)

그림 3도 그림 2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ALE 참여와 고용보호 지수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보호지수는 임시직과 정규직을 모두 합한 지표로 나타낸다. ALE 참여와 고용보호 지수의 상관관계수로 .31로 약하지도 않지만 뚜렷하지도 않는 양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표본 국가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급한 일반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그림 3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림 2와 그림 3은 ALE 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시켜야 하는지에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논할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이 보여주는 것처럼 ALMPs와 고용보호가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ALE 참여 촉진과 관련하여 실제 ALMPs와 고용보호법제의 시행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ALMPs는 OECD 국가별로 내려진 정의가 다소 다르고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실행이 되면서 성공률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Martin, 2014). ALMPs의 다소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성과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못한 성과는 ALMPs가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몇몇 양적 연구에서는 실업을 낮추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ALMPs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하게 나타나고 있다(Baker, Glyn, Howell, & Schmitt, 2005; Bertola, Blau, & Khan, 2002). 구체적으로 OECD(2005)는 ALMP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훈련이 다른 ALMP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성과는 ALMPs는 값비싼 직업훈련의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통제의 ALE 참여의 영향에 대한 증거도 제한적이고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Saar 외, 2013). 고용보호의 제도적 통제는 영구직/임시직 고용계약과 같은 노동시장 이동성과 연계하여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Svalund, 2013). 노동시장 통제는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서 노동시장이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Svalund, 2013). 이러한 흐름은 개별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육과 훈련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ALE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임시직 노동자들과 영구직 노동자들 사이의 교육 및 훈련 참여의 양극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Dieckhoff 외, 2007; DiPrete, Goux, & Maurin, 2001). 영구직들이 임시직들보다 더 많은 ALE 참여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들의 ALE 참여에 대한 투자는 고숙련, 고소득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ALE 참여의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Blossfeld, 2003).

## VI. 결론

일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연령, 학력수준), 직장환경(고용기간), 사회경제적 환경(사회경제적 이동, 직장 안정성)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시, 거시 분석 수준의 변수들이 ALE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적절한 변수들을 필요로 한다. ALE 참여의 불평등은 직업 능력 향상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빈부격차의 고착화, 사회 계층간 이동 제한, 사회 불안정 심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역효과이다. 결국 중시적 및 거시적 요소들이 ALE 참여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과 파급력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은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의 강화는 물론 사회복지 강화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주어지는 ALE 기회와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시스템의 구축의 정도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 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통계자료 SM 2014-07. 한국교육개발원.

Acemoglu, D., & Pischke, J. (2000). Certification of training and training outcomes. *European Economics*, 22, 159-202.

Allmendinger, J.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 231-250.

Almond, P., & Menendez, M. G. (2006).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social choices.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2(3), 407-425.

Baker, D., Glyn, A., Howell, R., & Schmitt, J. (2005).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unemployment: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ross-country evidence. In D. R. Howell (Ed.), *Fighting unemployment: The limits of free market orthodoxy* (pp. 72-11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cker, G.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s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élanger, P. (2011). *Theories i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Leverkusen Opladen, Germany: Barbara Budrich Publishers.

Bertola, G., Blau, F. D., & Kahn, L. M. (2002).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demographic employ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s no. 904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inelli, C., Loveless, M., & Whitefield, S. (2015). What is social inequality and why does it matter? Evidence from Central and Eastern Europe. *World Development*, 70, 239–248.
- Björklund, A., & Jäntti, M. (1997).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Swede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87(5), 1009–1018.
- Blanden, J., & McNally, S. (2014). Reducing inequality in education and skill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EENEE Analytical Report No. 21.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Blossfeld, H.-P. (2003) Globalization, social inequality and the role of country specific institutions. Open research questions in a learning society. I P. Conceicao, M.V. Heitor & B.-A. Lundvall (Eds) *Towards a learning society: Innovation and competence building with social cohesion for Europe* (pp. 303–324). Aldershot, UK and Brookfield, USA: Edward Elgar).
- Boeren, E. (2009). Adult education participation: The Matthew principle. *Filosofija-sociologija*, 20(2), 154–161.
- Buchholz, S., Hofäcker, D., & Blossfeld, H.-P. (2006). Globalization, accelerating social change and late careers: A theoretical framework. In H.-P. Blossfeld, S. Buchholz, & D. Hofäcker (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late careers in society* (pp.1–2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semeyer, M. R. (2015). *Skills and inequality: Partisan politic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 reforms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ss, K. P. (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Dabla-Norris, E., Kochhar, K., Suphaphiphat, N., Ricka, F. and Tsounta, E.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SDN/15/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Dämmrich, J., de Vilhena, D. V., & Reichart, E. (2014). Participation in adult learning in Europe: The impact of country-leve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H.-P. Blossfeld, E. Kilpi-Jakonen, D. V. de Vilhena, & S. Buchholz (Eds.), *Adult learning in modern socie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from a life-course perspective* (pp. 29–55).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Dämmrich, J., Kosyakova, Y., & Blossfeld, H.-P., (2015). Gender and job-related non-formal training: A comparison of 20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6(6), 433–459.
- Desjardins, R. (2010). Participation in adult learning. In K. Rubenson (Eds.),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p. 205–215). Oxford: Elsevier.

- \_\_\_\_\_ (2013). Considerations of the impact of neoliberalism and alternative regimes on learning and its outcomes: An empirical example based on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adult learning.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23(3), 182-203.
- Desjardins, R., Rubenson, K., & Milana, M. (2006) *Unequal chances to participate in adult lear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Paris: UNESCO.
- Dieckhoff, M., Jungblut, J.-M., & O'Connell, P.J. (2007). Job-related training in Europe: Do institutions matter? In D. Gallie (Eds.), *Employment regimes and the quality of work* (pp. 77-1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Prete, T. A., Goux, D., & Maurin, E. (2001).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employment chances. The structure of unemployment in France and Swed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233-254.
- Ebbinghaus, B. (2012). Comparing welfare state regimes: Are typologies an ideal or realistic strategy?, presented at European Social Policy Analysis Network, ESPAnet Conference, Edinburgh, UK, 2012.
-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tevez-Abe, M., Iversen, T., & Soskice, D.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welfare state. In P. A. Hall &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pp. 145-183).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uthro, P. A. (2011). Active and inclusive citizenship for women: Democratic consideration for fostering lifelong education. In S. B. Merriam, & A. P. Grace (Eds.). *The Jossey-Bass reader on contemporary issues in adult education* (pp. 186-202). San Francisco: Jossey-Bass.
- Hall, P. A. & Soskice, D. W.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P. A. Hall, & D. W.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pp. 1- 6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lpi-Jakonen, E., de Vilhena D. V., & Blossfeld, H-P. (2015). Adult learning and social inequalities: Processes of equalization or cumulative disadvantag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61(4), 529-546.
- Kilpi-Jakonen, E., Buchholz, S., Dämmrich, J., McMullin, P., & Blossfeld, H-P. (2015). Adult learning,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inequalities in modern societies. In H.-P. Blossfeld, E. Kilpi-Jakonen, D. V. de Vilhena, & S. Buchholz (Eds.), *Adult learning in modern*

- socie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from a life-course perspective* (pp. 3–28).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
- Lauder, H., Brown, P., & Ashton, D. (2008). Globalization, skill formation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New Political Economy*, 13(1), 19–35.
- Nilsson, S., & Nystrom, S. (2013). Adult learning,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 in the employability regime. *European Journal for Research on the Education and Learning of Adults*, 4(2), 171–187.
- OECD. (2003).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05). *Promoting adult learning*.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6). Working age population (indicator). doi: 10.1787/d339918b-en (Accessed on 15 September 2016)
- Rees, G.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adult education. In K. Rubenson (Eds.),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p. 259–264). Oxford: Elsevier.
- Rees G., Fevre, R., Furlong J., & Gorard S. (2006). History, biography and place in the learning society: Towards a sociology of lifelong learning. In H. Lauder, P. Brown, J. Dillabough & A. H. Halsey (Eds.), *Educ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pp. 926–93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osmaa, E.-L. & Saar, E. (2010). Participating in non-formal learning: Patterns of inequality in EU-15 and the new EU-8 member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3(3), 179–206.
- Roosmaa, E.-L. & Saar, E. (2012). Participation in non-formal learning in EU-15 and EU-8 countries: Demand and supply sid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31, 477–501.
- Rubenson, K. (2006). The Nordic model of lifelong learning. *Compare*, 36(3), 327–341.
- Rubenson, K. (2007). Determinants of formal and informal Canadian adult learning: Insights from the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surveys. Learning Research Series, Toronto: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Rubenson, K. (2009). Lifelong learning: Between humanism and global capitalism. In P. Jarvis (Eds.),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pp. 411–42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ubenson, K. (2010).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In K. Rubenson (Eds.),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pp. 216–221). Oxford: Elsevier.
- Saar, E., & Helemäe, J. (2008) Estonia on the backdrop of the European Union states: Country-specific institutional context and lifelong learning. *Studies for Learning Society*, 1, 7–16.

- Saar, E., Ure, O. B., & Desjardins, R. (2013). The role of diverse institutions in framing adult learning system.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8(2), 213-232.
- Soskice, D. (1999).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In H. Kitschelt, P. Lange, G. Marks, & J. D. Stephens (Eds.),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pp. 101-1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valund, J. (2013). Labor market institutions, mobility, and dualiz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Nordic Journal of Working Life Studies*, 3(1), 123-144.
- Valiente, O. (2014). The OECD skills strategy and the education agenda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39, 40-48.
- Wahler, S., Buchholz, S., Jensen, V. M., & Unfried, J. (2014). Adult learning in Denmark: Patterns of participation in adult learning and its impact on individuals' labor market outcomes. In H-P Blossfeld, E. Kilpi-Jakonen, D. V. de Vilbena, & S. Buchholz (Eds.), *Adult learning in modern socie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from a life-course perspective* (pp. 223-241), Cheltenham and Northampton: Edward Elgar.